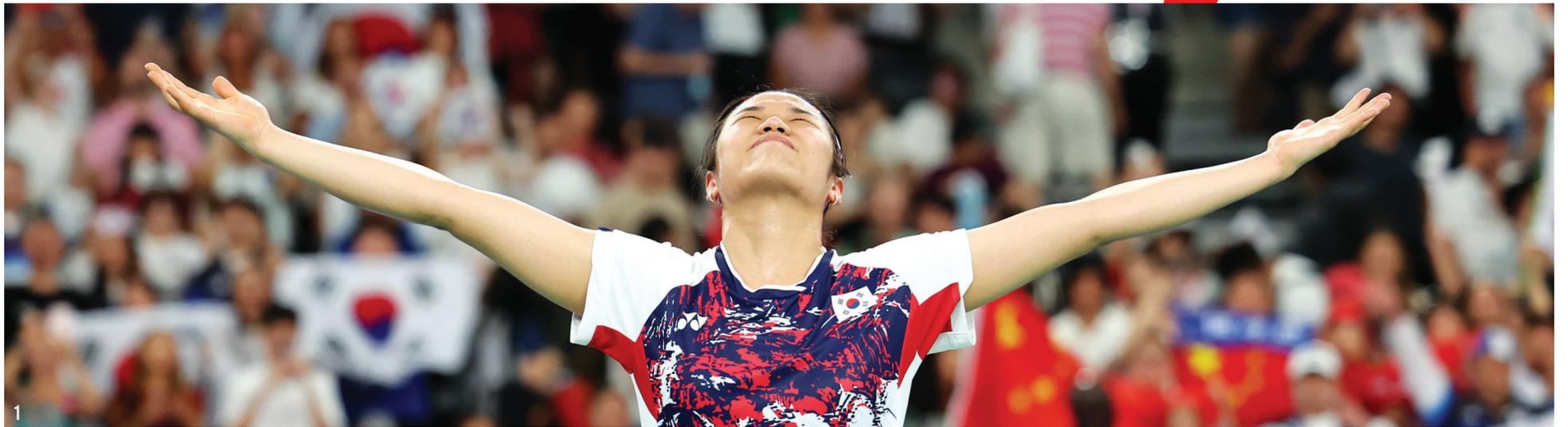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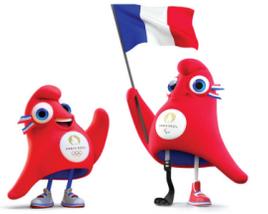


모두가 빛났다... 도전은 계속된다



'지구촌의 스포츠 대축제' 2024 파리 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. 금메달 13개, 은메달 9개, 동메달 10개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작성한 한국 선수단,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광주·전남 선수단도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펼치며 이번 올림픽 무대를 빛냈다.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이들이 보여준 끝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은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다. 세계 무대에 자신을 증명해 낸 지역 선수단이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에 감사를 전하며 이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순간들을 신는다.



2



5



3

- 1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을 제패하며 '커리어 그랜드 슬램'을 완성한 나주의 딸 안세영.
- 2 '은빛총성'을 울리며 한국 올림픽 사상 첫 속사권총 메달리스트가 된 장성 출신 조영재.
- 3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 달성과 함께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한 순천시청 남수현.
- 4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한 전남도청 최세민.
- 5 복싱 여자 54kg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수확한 화순군청 임애지(사진 오른쪽).

/연합뉴스



4



근대5종에서 혼신을 다한 플레이를 선보인 광주시청 전용태·영암 출신 서창원(사진 위)과 수영 경영 접영 200m에서 도전의 무대를 펼친 여수출신 김민섭(사진 왼쪽).

/연합뉴스

